

# 기초연금 토해내는 광주 빈곤층 노인 1만2616명

### 소득에 포함돼 연금 받은 만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깎여 수급률 66.5%로 기준 미달... "빈곤률 낮출 제도 개선 필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광주지역 빈곤층 노인 1만2616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6만2450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42만1223명(25.3%)으로, 동시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7만1606명) 중 1만2616명(17.6%)이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로 감액 대상에 포함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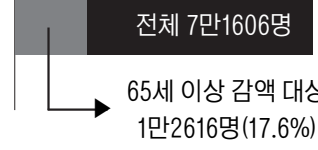
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1.74%, 서구 17.69%, 남구 16.65%, 북구 18.24%, 광산구 15.36%가 기초연금 감액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매달 25일 1인당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받아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 수만큼 깎인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6년 현재 중위소득의 29% 이하)에게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지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

### ■ 광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 남인순 의원실)



은 사람이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기초연금을 비롯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을 모두 소득에 포함하고, 소득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을 삭감지급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장 가난한 극빈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노인 내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분석한 노인 상대 빈곤률(중위소득 50% 미만)은 각각 47.6%와 52%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빈곤률이 4.4%p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은 "빈곤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줬다 뺐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를 포함한 10개 시·도의 기초연금 수급률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만9498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11만2758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7%보다 0.5%p 하락한 수치다. 기초연금법은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반면 전남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81.8%로 전국 평균(66.1%)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생활고 119만 세대, 건보료 체납

### 청소년 체납도 5만1000세대

전국적으로 119만 가구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119만 가구에 달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를 포함해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독촉대상자와 체납기간 경과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독촉대상자는 380만 세대로,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대상은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부동산 4만3094건, 자동차 18만9305건, 예금 38만1089건, 임금 424건, 기타채권 5만53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제한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독촉 대상에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5만1000세대에 이르고, 사전·사후급여제한 대상자도 6만43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의원은 건보공단의 체납독촉이 연령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행정상 문제로 아동들에게 독촉장이 발송되어 불안하게 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행정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어르신 낙상 사고, 예방이 최우선...수완보건지소 교육

광주시 광산구가 노인대학, 경로당에서 낙상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사진) 수완보건지소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교육에는 창대노인대학, 청사노인대학, 첨단1동 소재 3개 경로당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균형 훈련과 테라밴드를 이용한 유연성 운동, 하지 강화, 평형감각 훈련으로 구성됐다. 심신의 균형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낙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수완보건지소 관계자는 "겨울이 오기 전부터 미리 대비해 낙상으로 입을 수 있는 골절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며 "눈높이에 맞는 강좌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겠다"고 밝혔다.

수완보건지소 재활보건팀(960-8823·8824)에 문의하면 낙상예방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아이 TV시청 줄이려면 친밀감 높이세요"

### 연구 결과 훈육보다 효과적

영유아의 TV 시청시간을 줄이려면 영아기보단 부모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온정적·통제적 양육 행동, TV 시청시간,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논문을 보면 통제적 양육 행동보다는 온정적 양육 행동을 행한 부모의 자녀가 TV 시청시간이 더 적었다.

보고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 5~6차년 자료를 활용해 만4세 아동 1703명의 TV 시청 시간과 부모의 양육 유형을 조사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온정적 양육 행동은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의 6개 질문으로 평가했다.

통제적 양육 행동은 '지켜야 할 규칙·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등의 문항 6개를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 만 4세 유아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1.36시간이었으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TV 시청시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온정적 양육 행동이 증가할수록 TV나 비디오 시청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을 작성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박사 후 연구원은 "미디어는 부모의 적절한 중재와 지도를 통해 TV 시청이 유아의 정서, 행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연립뉴스

### 복지 소식

▲재10회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일시: 6~8일

-장소: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문의: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062-600-390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보수 교육

-일시: 7월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5·18교육관 대강의실

-대상: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

-문의: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062-653-8568

▲희귀질환 근육장애인 희망더하기 작은음악회

-일시: 11일 오후 5시

-장소: 남구문예회관

-문의: 광주근육장애인협회

062-675-7192

▲2017년 복권기금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7일까지

-문의: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2-222-1885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 사업

-신청기간: 12일까지

-문의: 광주장애인총연합회

062-513-1080

## 광주 동구, 사회복지 브랜드 '더드림 동구' 확정

광주시 동구(정장 김성환)가 복지시책의 특색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회복지 브랜드를 '더드림(The Dream) 동구'로 확정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친다.

동구는 지난 7월 네이밍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복지담당공무원, 시설·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드림

(The Dream) 동구'를 복지브랜드로 채택했다.

'더드림(The Dream) 동구'는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더 드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구는 앞으로 브랜드에 걸맞은 '더드림(The Dream) 동구' 복지시책을 다양하게 펼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격정해결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겨울용품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복지를 해결하는 '주민복지공동체 결연사업' 등이 대표

적이다.

김성환 정장은 "동구는 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7.54%로 광주 평균인 4.87%보다 높고 지속적인 노인인구비율 증가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지원 발굴 및 마을 단위 복지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호텔급,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 시세 / 감정가 - 12억
- 매매 - 9억 5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9월 30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